

등록금 협의 본격화

서울 학생측 12% 인상 최종안 제시
분임토의 통한 총회투쟁 전개할 듯 수원

91학년도 등록금협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는 그동안 학교측과 협의한 내용을 정리, 학생측 최종요구안을 학교당국에 제출하고 지난 8일부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예결위의 최종요구안을 보면 첫째, 건설가계정은 90년 합의에 근거해 전액 재단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 둘째, 89년 총장과 합의되었던 의료원 전입금 1백%가 학교측이 80%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액 20%(약 10억)를 조영식 총장이 책임지라는 것. 셋째, 총예산중 인건비 비율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90년 합의서를 근거로 91년 총예산중 인건비 비율을 57%에서 55%로 줄이며, 차액 13억 (인건비 13%인상을 감안한 액수)는 재단전입금이나 국고보조금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것. 넷째, 음대리사이트홀 보수 등 학생복지·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91학년도 등록금인상율은 12%로 책

정 요구했다.

또한 예결위는 90년 12억의 적자예산과 올해도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등록금협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재단에 관

수강신청 오늘부터 5일간
예비강의제 실시로 늦어져

수원캠퍼스 교무과는 9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을 재학생은 오늘부터 15일까지, 복학생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강신청은 각과별로 정해진 학년별수강신청날짜에 따라 OMR카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한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26일부터 4일간이며, 복학생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없다.

한편 이번 수강신청기간은 예비강의제 실시로 인해 예년에 비해 약 1주일가량 늦게 실시되어 오늘부터 모든 강의에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 전입금도 병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노천극장에서 '91등록금 합리적 편성과 재단공개 및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자주정회 한 뜻 모으기'를 갖는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그간의 협의에서 재단공개를 비롯한 자료제시만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인상을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는 등록금협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과단위 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투쟁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등록금 협상은 총학생회가 '철저하게 학우대중의 의견을 수렴 하겠다'라는 원칙을 견지해 온 관계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나 이번주부터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등록금투쟁 상황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변동상황이 있을 때마다 전전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0면)

신임교원 대거 충원

서울(17)·수원(8) 대폭 임용, 인력부족 해소

양캠퍼스 교무과는 지난 1일 91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충원인원 명단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신임교원은 서울캠퍼스 17명(조교수 14명, 전임강사 3명), 수원캠퍼스 8명(부교수 1명, 조교수 6명, 전임강사 1명) 등 총 25명이 신규임용되었다.

충원과정은 각 해당 학과에서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 것이다.

인사위원회는 양캠퍼스 부총장, 기획관리실장, 교무처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충원되는 학과와 신임교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경제학과:박우성 △경영학과:박우석 △회계학과:이은상 △식품영양학과:한명주 △의학과:이동호, 홍성표, 이태원, 홍남표, 임영진, 이충현, 이용길, 최준명, 나영실 △한의학과:조기호, 김중호, 정석희 △치과대:최기운

【수원캠퍼스】△영문과:신명아 △일문과:미노요시즈무 △행정학과:한상원 △경영학과:이호창 △환경학과:황기태 △물리학과:최

석호 △트목공학과:한무영 △산업디자인학과:최명식

(프로필 11면)

학교 앞 식당불매운동
수원, 물가인상에 항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 주변의 물가인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희식당'과 '블랙우드'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장도서관 사서과는 지난 겨울방학중에 총 5천7백69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

기증된 도서는 지난 2월 퇴원한 박규창(화학)교수가 화학관계 도서 5백41권, 김명수 재무처장이 3백82권, 손재식(평화복지대학원장)교수가 기증한 동아원색대 백과사전류의 장서 1백2권 등이다.

또한 지난 1월16일故박정만

시인 유족 도서기증
박규창교수등, 방학중 5천여권

중장도서관 사서과는 지난 겨울방학중에 총 5천7백69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

기증된 도서는 지난 2월 퇴원한 박규창(화학)교수가 화학관계 도서 5백41권, 김명수 재무처장이 3백82권, 손재식(평화복지대학원장)교수가 기증한 동아원색대 백과사전류의 장서 1백2권 등이다.

시인 유족 도서기증
박규창교수등, 방학중 5천여권

중장도서관 사서과는 지난 겨울방학중에 총 5천7백69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

기증된 도서는 지난 2월 퇴원한 박규창(화학)교수가 화학관계 도서 5백41권, 김명수 재무처장이 3백82권, 손재식(평화복지대학원장)교수가 기증한 동아원색대 백과사전류의 장서 1백2권 등이다.

캠퍼스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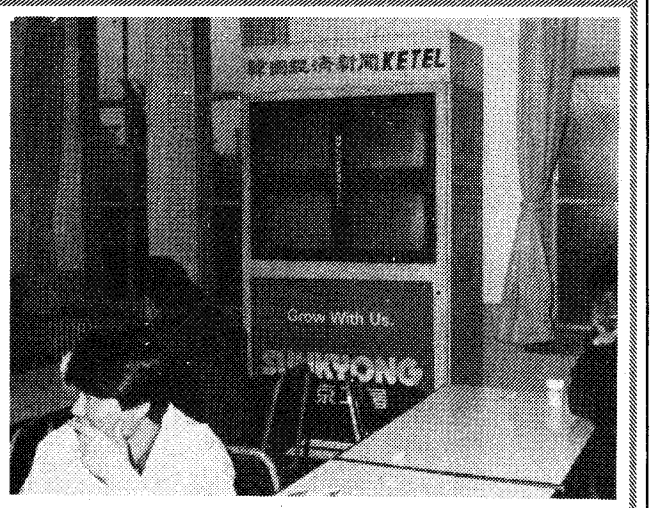
신기한 화면과 정보력으로
뜻시선을 사로잡았던
KETEL.

반짝반짝 움직이던 내게의
'눈'을 상실한채 학우들의 외
면에도 관심이 없다.

지금은 그그룹 가두광고
역할로 유일한 가치를 발휘
해서인지 언제부턴가 덩치만
큰 원전 '마보상자(?)'로 불
린다.

(이호수기자)

우리의 눈은 어디에?

법대 강사추천 학생참여
'사회학개론' 15일까지 확정키로

법과대학 91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사회학개론의 강사임용문제를 둘러싸고 교수와 학생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캠퍼스 법과대의 행정학과와 법학과에 사회학개론이 새로 개설되었는데 강사임용에 관해 교수측이 강사는 수원사회학과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회학과학과장 유도진교수와 양영석교수를 추천했으며 학생회는 교수강사 추천시 학생참여를 주장, 본교 법대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으며 사회학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김재필교수를 추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대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대표 4인과 법대 학장은 지난 7일 면담을 갖고 사회학개론 취지에 맞는 올바른 교수채용, 학과장 참여,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교수추천, 추천서를 계속적으로 받아 3월15일까지 강사임용을 완료할 것등을 합의했으며 신청교수들의 강의평가를 제논 후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법대 사회학개론은 현재 휴강상태며, 교수임용이 끝나는 3월 중순에 재개강될 예정이다.

원중순에나 정상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원 민중연대 사업부
'민생전기'와 등반대회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민중연대사업부는 지난 10일 도봉산에서 구석동자 구출을 위한 기금마련 대동제, 노학연대 한마당 등을 통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민생전기 노동조합과 '노학등반대회'를 가졌다.

노동자·학생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등반대회에 대해 이진숙(국문·3)연대사업부장은 "이전의 단순한 문화교류 노학연대는 서로에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등반대회는 노동자,

학생 모두가 노학연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사 령◇

▲편집장 이준희(철학·4) 뎬 임기만료
▲전만환(경외·3) 任 편집장
▲오세운(인자·3) 任 취재부장
▲조인성(국문·3) 任 특집부장
▲김미령(국문·3) 任 문화부장
▲이금주(국문·2) 방현기(경제·2) 김기태(경제·2) 오은희(영교·2) 황금진(영교·2) 송보영(중문·2) 임종준(사범·2) 이호수(회·2) 이지원(사회·2) 任 정기자 (이상 3월1일자)

대학주보사

사 고

대학주보 40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해 건전한 학풍과 대학문화를 건설하고 있는 대학주보가 91학년도를 이끌어갈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양캠퍼스 신입생
▲모집부서: 일반(취재, 학술, 특집, 문화)기자, 컷(만화)기자, 광고(기획, 카피, 도안)기자, 사진기자

▲선발방법 및 일정
1) 필기시험: 작문, 인성검사
3월19일 오후5시 양캠퍼스 편집실

2) 면접 및 주제토론
△수원캠퍼스=3월20일 오후5시, 수원편집실
△서울캠퍼스=3월21일 오후5시, 서울편집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편집실(구내전화 0095), 수원편집실(구내전화 2056)

▲원서접수 마감: 3월19일 오후5시까지

대학주보사

“대학주보는 신문의 행간을 읽고
싶은 신입생을 좋아합니다”

동용문을 들어설때의 설레임,
해야 할 것이 많고 고민할 것도 많은 순간,
보람찬 대학생활을 펼치고 싶다.
대학은, 나의 모습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참모습은...
과연 대학인으로서 나는 누구일까?

지면안내

- 1면(종합보도면): 학내 또는 학내관련 모든 소식과 사건을 보도한다.
- 2면(논설면): 학내외에 관련한 모든 시사문제를 논평하고, 본사의 논지와 전망을 제시한다.
- 3면(기획시리즈): 사회적인 제반문제를 학술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다.
- 4면(여론면): 독자투고면, 모든 경회인, 즉 교수·직원·학생·동문의 소식과 의견을 담는다.
- 5면(특집면): 학내의 주요사건을 보도, 해설하며, 사회현상 및 쟁점들을 논평한다.
- 6면(")
- 7면(")
- 8면(문화면): 문화이론과 함께 문화영역에 대한 종합보도 및 그에 대한 단평을 다룬다.
- 9면(학술면): 교내의 학술이론을 소개하고, 그 흐름을 파악, 평가한다.
- 10면(취재면): 학내사건에 대한 해설 및 학교발전을 위한 기획취재를 실는다.
- 11면(취재면): 학내 또는 학내관련 모든 취재기사를 다룬다.
- 12면(문화면): 학내의 각 분야별 창작물을 소개하며, 기타 문화활동을 점검한다.

고정란 소개

- 캠퍼스 표정: 사진기사(포토에세이적 성격)
- 말해봅시다: 독자투고
- 가로수: 교수·직원(일정한 주제에 대한 교수의 의견을 듣는다)
- 데스크칼럼: 부장단 집필
- 석공: 본사 동문칼럼(한 사회인으로서 제반 사회문제를 논평)
- 세시공: 정기지 칼럼
- 교시탐: 교내 취재를 바탕으로 한 학내 발전을 위한 제언
- 취재노트: 기자 가집란
- 참고열람실: 용어집(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학술적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용어의 출현배경을 설명한다)